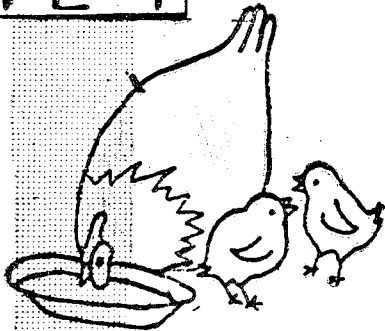


# 이달의



## 사양관리

넓은 의미로 닭은 인간에게 고기와 계란을 제공해주는 경제 동물중의 조류에 속한다고 말할수 있다. 인간은 이 고기와 계란을 목적으로 하여 오랜세월동안 닭을 육종개발해왔고 이와 더불어 고도로 발달된 가금 영양, 사양관리기술 및 각종 질병의 예방 치료기술이 년중 육추를 가능케 하였

고 경제적 동물로서의 기업화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됐다고 본다. 원래 닭은 생리적으로 겨울철의 추위보다 여름철의 더위에 더 약하다. 즉 여름동안의 사양관리가 더 중요하다. 7월과 8월은 육추의 계절로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기간이므로 육추, 영양, 환경위생 및 질병에방관리면에서 특수한 사양관리를 필요로 하는 시기라 할수있다. 이와같이 7월과 8월은 여름철의 특수한 사양관리 기간으로 보고 양말을 구분하지 않고 이달에 지면을 접하지않는 부분은 다음달에 계속하기로 한다.

### 1. 육추관리

여름은 고온다습한 계절이고 특히 7월은 장마등 이상기후가 6월에 이어 계속되는 달이기도 해서 차별한 주의를 해야할 시기라고 본다. 이때 부로일러의 육추 및 기타 부득이 육추를 해야할 사람은 육추를 하는데는 필요불가결한 3가지 요소라고 할수있는 온도, 습도, 환기관계를 잘 조절해야 한다.

1) 온도 : 육추기간의 급원 또는 보온은 병아리가 외기온에 저항해서 자기를 보호할수 있는 능력 즉

배와 등에 털이 나서 자체온도의 발산을 막고 외온의 영향을 받지않을 때까지의 기간에 인공적으로 가열하여 온원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 기간은 보통 40일 정도로서 급원방법을 첫주에 95°F(35°C)로 하여 이후 주마다 5°F씩 줄여가는 것이 보통 상식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7월과 8월에 육추를 할 경우는 낮의 온도는 보통 30°C 이상을 계속하므로 1주일 이전에 폐온을 하고 병아리 상태에 따라 밤의 기온과 이 상기온의 변화 정도를 감안하여 병아리가 물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하도록 한다. 물론 이때 충분한 환기를 시켜줄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원래 하절기의 육추는 온도, 습도, 환기의 3요소 조절을 잘 한다는것은 꽤 어려운 일이나 창문과 환기공의 개폐 및 기타 강제환기장치등을 적절히 이용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2) 환기 : 원래 환기문제는 육추기간 급은 및 보온과 양립할수 없기 때문에 보온에 신경을 쓰다보면 소홀해져 망각해 버리기쉬운 요소이다. 그래서 병아리 발육이 나빠지고 호흡기체통의 질병에 걸리거나 유발시킬 염려가 많아진다.

특히 여름동안의 과습된 공기를 제거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을 찾을수 있다. 육추 제 3주째 들어가면 3요소중 환기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서 기온, 기상상태를 봐서 창문 및 환기공을 활짝 열어 환기량을 증가시키고 공기의 교류를 최대한으로 시켜 산소의 보급을 많이 해줌이 병아리를 건강하게 기르는데 좋다.

3) 습도 : 육추의 적정습도는 상대습도 65~70%로서 실내공기로 1도 가열하면 3.5~4%의 습도가 저하되므로 겨울철의 육추는 급습이 문제가 되지만 여름철의 우리나라

7월

정 근 기

<영남대 축대 교수>

의 습도는 75~80%(지방에 따라 다소 다르다) 이상을 항상 유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과습으로 인하여 병아리의 허약, 질병유발 요소로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7월은 일기가 좋지않고 장마가 계속되는 기간이라고 봐야하므로 과습제거에 각별한 신경을 써서 환기공은 활짝 열고, 기상조건에 따라 창문개폐 조절을 적절히 해서 최대한의 습기 제거에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또한 습도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급수기 주위의 짓은 자리것은 자주 갈아주고 다른 자리것도 상태에 따라 깨끗하고 건조한 새로운 자리것으로 보태어 갈아주거나 교환해 주어서 가능한한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이 좋다.

이상의 3요소는 제사의 구조, 위치, 크기 및 토양조건과도 관계가 크므로 제사를 건축할때 부터 세심한 계획과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외 이 기간의 육추는 밀사를 해서 안된다. 직경 1.3~1.8m의 500수용 산형육추기를 사용할 경우 400~450수 정도 수용하는 것이 좋고 제사면적은 8주령까지 평당 35수 정도로 하는 것이 알맞다고 본다. 또한 더위로 인하여 음수량이 증가하고 병아리 일때는 10자 이상을 물을 찾아뚫기 때문에 충분한 급수기를 설치해서 신선한 물을 자유롭게 먹도록 해주고 사료섭취량은 반대로 줄어 발육에 지장이 오므로 섭취량을 높여 주기 위해서 보조전등을 사용해서 일조시간을 조금 연장시켜 주는 것이 좋다. 부로일러의 경우는 중앙집등을 권장할만하다. 사료급여는 모이통에 많이 남아서 사료가 변질되거나 변질로 인한 영양가 손실이 없도록 다음날 아침에 모이통 바닥에 약간 남아있을 정도로 매일 주도록 한다. 그리고 아무리 조건이 나쁜 계절이

라고 해서 계획된 예방접종실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병아리의 상태를 봐서 영양제나 항생물질등을 약간 투여하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데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2. 산란계의 영양관리

삼복의 더위로 인하여 닭은 입을 벌리고 헐떡거리면서 사료를 먹지 않게 되어 사료섭취량이 줄고 반대로 음수량은 증가한다. 이에 따라 산란을 감소, 난중감소, 난질과 난각상태불량, 품은똥배설, 불충분한 사양관리로 인한 질병의 발생등 여러가지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된다. 또한 취소계와 휴산계도 발생하게 되고, 7월과 8월을 지나는동안 여름피로로 인하여 9월에 환우제가 생길 우려도 있으니 여름철의 특수 사양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항상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1) : 산란과 사료 : 닭이 산란하기에 가장 적당한 온도는 15°C~24°C의 범위내라고 한다. 27°C 이상 계속 온도가 상승하면 식욕이 감퇴되어 사료섭취량이 줄게된다. 줄어든 소량의 섭취량으로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품질을 높여준, 즉 단백질, 비타민, 광물질등이 강화된 "여름사료"를 급여토록 해야한다. 완전배합사료를 구입하는 사육가는 반드시 여름사료로서 상기 영양소를 강화한 특수사료를 제조하는 사료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선택해야 할 것이며 여름동안에 발생하는 상기한 제문제들은 사료영양분의 강화와 환경관리개선외 양자 조합에 의하지 않고는 도저히 막을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단백질(아미노산강화등), 비타민, 광물질등이 보강된 특수사료를 급여해도 기온이 27°C 이상 계속 상승할 때는 때때로 난각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는 2일에 한번씩 100수당 과과분을 500gr 정도 보충해 주는것이 좋다. 단 이 칼슘보충으로 인하여 산란과 사료섭취량이 떨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난각상태가 개선되면 즉시 칼슘보충을 중지해야 한다.

2) 급수관계 : 닭의 음수량은 섭취한 사료량, 환경온도와 습도, 닭의 활동상태 및 섭취한 사료의 성질(식염, 수분, 단백질함량등)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겠다.

그러나 보통 환경온도하에서 량단위로 섭취한 사료량의 2~3배쯤 물을 먹는다고 하나, 32°C 이상 온도가 상승했을때는 5배정도로 음수량이 증가한다고 한다.

이와같이 음수량의 증가가 붉은똥, 심하면 물똥을 배설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어 물을청결히 해야 할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급수원이 상수도가 아니고 우물물일 경우 크로르칼키같은 소독 약품으로 자주 소독을 하는것이 좋고 한번쯤은 보건소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해보는 것이 안전하고 좋다.

닭에 급수할 수 있는 물성분의 표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총용해고형물 1,000ppm 이하, 총알칼리도 400ppm이하, 수소이온농도(pH) 8.0, 질산염 45ppm 이하, 황산염 250ppm 이하 그리고 더운 여름이라고 해서 냉각시킨물을 줄 필요는 없다. 산란율이나 사료효율에 아무 효과가 없고, 오히려 냉각장치에 대한 시설비와 전기료가 더 부과될 뿐이다. 여름철의 제문제로서 이달에 다 설명을 못한것은 환경위생, 질병방역과 관련하여 다음달에 자세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